

철마다 자연 만물이 보여주는 진리는 어렵지 않으면서도 부족한 것도 없는 듯합니다.

추수(秋收)와 같이 마음의 풍성을 이루자는 덕담이 언제나처럼 많으셨고, 수범(垂範)으로서 대중의 행복과 평안을 이룬 공덕은 경의로 존중하게 합니다.

마음의 수확을 이루게 한 그간의 덕화에 감사드리며, 언제나처럼 청안(淸安)한 건강을 발원합니다.

불기2557년 한가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